

강진군문화관광재단 - 서울 청년센터 협약 체결

서울 관악·금천청년센터·강진청년센터 연계 청년교류 확대
수도권-지역상생 협력체계 구축으로 생활인구 증가까지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이 지난 13일 서울시 관악구청년센터, 금천구청년센터, 강진군청년센터와 '지역교류 청년 지원사업의 공동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 청년과 강진 청년 간 교류를 확대하고, 강진의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수도권 청년의 강진 방문과 체류, 정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네 기관은 ▲수도권 청년이 '지역의 매력'과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강진 관광프로그램 ▲수도권 청년에게 '잠시 쉬'와 '회복'을 제공하는 강진문화프로그램 ▲지역 간 청년 교류사업 및 프로그램 ▲수도권 청년

의 강진정착 및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협력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은 2월 말 열리는 제54회 강진정자축제 연계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강진군의 문화예술 인프라와 관광자원을 활용해 청년 대상 체험형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센터들은 참여청년 발굴과 프로그램 연계를 담당해 청년 간 실질적인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 교류를 넘어, 청년에게 강진에서의 경험과 회복의 시간을 제공하고 실제 방문과 체류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



해 강진군은 청년층의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대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 김기태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청년이 지역을 경험하고, 머무르며, 다시 찾게 만드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수도권 청년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강진에

청년에게 매력적인 문화·관광 교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은 앞으로도 청년·문화·관광 분야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지역 활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생태계 조성에 힘을 기울인다.

강진/손경설 기자

국립남도국악원, 씫김곳의 현대적 재해석 담은 기획음반 '나를 위한 노래 <씻김>' 발매... 18일 공개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박정경)은 남도 지역 정례문화인 씫김곳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기획음반 '나를 위한 노래 <씻김>'을 제작해 2026년 1월 18일(일) 정오에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가무형유산 씫김곳, '나를 위한 치유의 노래'로 재탄생

씻김곳은 망자가 이승에서 풀지 못한 한(恨)을 씻겨주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남도 지역의 대표적인 천도 의식이다.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만큼 높은 예술성과 문화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곳'이라는 인식이 주는 거리감이 있었다.

이번에 발매되는 '나를 위한 노래 <씻김>'은 이러한 곳의 형식보다 그 안에 담긴 '씻김'이라는 기능에 주목했다.

망자를 위한 의식을 넘어, 남은 이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씻어내는 공동체적 치유의 힘을 현대적인 음악으로 풀어내고자 기획되었다.

씻김곳이 지닌 해원(解冤)과 기원(祈願)의 마음을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로 노래에 담아낸 것이다.

■가요·재즈·팝 등 다양한 장르 작곡가 참여,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오늘의 음악'

이번 음반은 전통음악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가요, 영화음악, 재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곡가 5명이 참여해 '오늘의 음악'으로 빚어냈다.

특히 씫김곳의 상징적이고 난해한 사설(가사)을 현대적인 언어로 새롭게 풀어쓰고,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후렴구를 만들어 '한을 푸는 이야기'가 내 삶의 언어로 다가올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9개의 수록곡 전체가 진도 씫김곳의 거리(순서)를 따라 흐르도록 구성해 곳의 숨결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연주 또한 대규모 악단이 아닌 실내악 중심으로 편성하여 향후 라이브 공연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망자를 위한 곳에서 산 자를 위로하는 9개의 노래로 흐름 구성

음반의 첫 곡인 '그대 오소서'는 망자의 영혼을 부르고 맞이하는 '초가망석'을 모



티프로 하여 축제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어 복과 재물을 비는 '제석곳'을 바탕으로 한 '싹맞이', '내려온다', 'God bless'는 신을 칭하고 복을 비는 과정을 현대적인 팝 감각으로 신나게 풀어냈다.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저승으로 인도하는 '넋올리기'와 '희실'을 기반으로 한 '오르소서'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발라드 풍으로, 원한을 푸는 '고풀이'를 소재로 한 '안녕'은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잔잔한 노래로 마음을 어루만진다.

마지막으로 망자가 갈 길을 닦아주는 '길닦음'을 소재로 한 '여정'과 불행을 막는 '액막음'을 토대로 한 'Be Happy'가 강렬한 사운드로 마무리한다.

■음반 발매 기념, 다채로운 온라인 참여 행사로 감상 즐거움 더해

국립남도국악원은 음원 공개를 기념해 1월 20일(화)부터 2월 19일(목)까지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하이라이트 영상을 감상하고 10줄 이상 감상평을 남긴 참여자 중 20명을 추첨해 문화상품권 5만 원권을 증정하는 '하이라이트 영상 댓글 이벤트'

▲수록곡 '오르소서'의 고음 부분 가장 영감을 지정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는 '오르소서 고음 챌린지'(참여 5명 추첨 기념품 증정)

▲챌린지 참여 영상을 국립남도국악원 공식 계정으로 공유하는 '다이렉트 메시지(DM) 이벤트'(참여 20명 추첨 기념품 세트 증정) 등이 마련되어 있다.

국립남도국악원 박정경 원장은 "이번 음반은 씫김곳이 가진 공동체적 치유의 힘에 주목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는 '나를 위한 노래'로 만들었다"라며, "전통음악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편안하게 즐기며 씫김곳에 담긴 해원과 기원의 메시지를 느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진도/오재명 기자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지역 문화예술 자원을 발굴·조명하기 위한 특별 기획전의 일환으로 서양화가 박구환 작가 초대전 '기억을 걷는 시간'을 오는 1월 12일부터 3월 30일까지 한국대나무박물관 갤러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구환 작가는 15년 전 담양군 수북면에 정착해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지역 예술인으로, 자연이 빚어낸 풍경을 판화의 소묘기법으로 표현해 섬세하면서도 깊이 있는 조형미를 구현한 독창적인 작업 세계로 주목받고 있다.

담양군 한국대나무박물관, 박구환 작가 특별 초대전 열어

유년 시절의 기억을 예술로 풀어낸 '기억을 걷는 시간' 전시 운영

이번 전시에서는 유년 시절의 기억을 작가 특유의 예술적 언어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유년 시절의 향기와 색깔, 형태 등을 작가의 시선으로 담담하게 풀어내며, 관람객들에게 따뜻한 공감과 삶의 위로를 전할 예정이다.

정철원 군수는 "이번 초대전은 지역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고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관람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대나무박물관은 매년 지역 예술인 초대전을 통해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거점 공간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담양/이종욱 기자

박구환 기억을 걷는 시간 Time Walking on Memory



2026. 1.12 ~ 3.30 한국대나무박물관

순천시시는 문화의 거리를 예술특화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고 지역 예술인의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순천시 문화의 거리 창작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문화의 거리 구역인 영동행동 전역과 금곡동 일부 지역에서 문화예술 업종을 운영하거나 거주 중인 주민이다. 지원 분야는 체험,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으로, 지원규모는 체험 최대 200만 원, 전시 400만 원, 공연 500만 원 이내이다.

신청 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이며, 신청 방법과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

순천시, 문화의 거리 예술창작 활성화 나선다

15일부터 순천시 문화의 거리 창작활동 지원사업 공모 접수

를 돕기 위해 1월 16일 오전 11시 삼산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사업설명회도 열린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순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세부 내용과 제출 서류를 확인한 뒤, 보탬e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문화의 거리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창작 기반을 다지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에

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예술인과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문화예술과 (061-749-6797)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정영인 기자

☎062-525-9775

2026 순천시 문화의거리 창작활동 지원 공모

신청기간 1.15. ~ 2.4

사업설명회 1.16(금) 11:00 / 삼산도서관 3층 시청각실

지원대상 문화의 거리 내 문화예술업 운영자, 주민, 단체

지원내용 전시, 체험, 공연 등 행사 지원

신청방법 보탬e 홈페이지 신청 / 순천시 공고 참고

문의처 순천시 문화예술과 061-749-6797

보다 나은 농어촌

농지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지

금이 있습니다

농지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